

“서산·의승군 제향 국가차원에서 기려야”

국회에서 열린 대흥사·불교사회학 세미나서 대중 목소리

“임진왜란 당시 국토를 수호했던 서산 대사와 의승군들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호국 의승군의 날(가칭)’을 지정해야 한다.”

국난의 위기에서 목숨을 초개같이 던진 의승군에 대한 국가차원 기념일 지정 등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산대사의 국가제향 복원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불자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등에 국가제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용태 동국대 교수는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대흥사에 표충사(表忠祠)를 건립하고 제향을 주관했다”며 “이러한 국가제향의 전통을 복원하려면 국가기념일 지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남북 공동 제향 및 기념식을 정기적으로 거행하고 이를 위해 북한 불교계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인선 순천대 교수도 “임진왜란 때 전사한 약 5000명의 의승군을 추모하기 위한 ‘호국 의승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조선은 ‘서산대사가 귀기한 것은 나라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에서 스님을 받드는 것은 충성을 권장하는 것’이라는 호조판서의 설명을 통해 대흥사에 표충사(表忠祠)를 건립하고 제향을 주관했다”며 “이런 국가제향의 전통을 복원하려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어 임진왜란 당시 의승이 귀기한 7월에 맞춰 의승 전체를 포괄하는

‘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합동 제향을 열 것도 제안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표충사 춘추 제향 실행의 역사와 의의’에서 “현행 교과서 6종 중 의승군 관련 내용이 빈약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라며 “개별 의승장 명칭을 표기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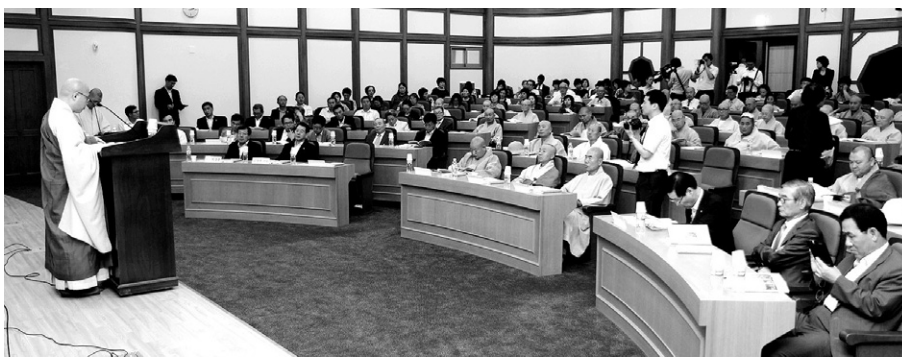
이창희 전성군관대 교수도 ‘조선시대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위상과 역할’에서 “임진왜란에서 실질적으로 왜군을 격퇴한 주력이 바로 의승군”이라며 “전란 이후 축성과 둔전 등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를 기리

19세기 제향 끊겨, 교과서 기술 누락 국가제향 봉행 및 의승군의날 지정 국회의원 앞에서 필요성 역설

는 국가제향은 19세기 이후 중단됐다”고 말했다.

불교계, “국가제향 복원 시급”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한국불교는 그 면면에 호국정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수많은 승장과 의승군의 희생을 기억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한국불교가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가와 민족 공동체 수호에 참여한 것은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라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호국불교 기념일



2012년 열린 서산대사 탄신 429주년 호국대행사 서산대사(위)와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서산대사 세미나.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황적 스님도 “임진왜란 당시 스님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서산대사의 국가제향 복원 및 의승군의 날 지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호국대행사인 서산대사의 제향이 국가 제향으로 온전히 복원되길 기대한다”며 “복측 묘향산 수승사에서 제향도 봉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서산대사가 임적한 묘향산 보

현사에서 올 하반기에 서산대사 제향을 거행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갑윤 정각회장과 前민주당 대표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김영록, 김장일, 송광호, 추미애, 주호영, 최재천, 송호창, 임수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국가제향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박철한 해남군수 외에도 박희재 군의회 의장과 7명의 군의원 등 지역계에서도 참석해 했다. 또 해남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 등 스님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대중화 이룬 남북조 연구에 힘모으자”

6월 22~24일 한·중·일, 중국서 불교학술대회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일본 동양대, 중국 인민대와 공동으로 6월 22-2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에서 ‘제2회 한중일 3국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남북조 시대의 불교 사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지난 2012년 ‘불교의 동아시아적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3개 대학이 10년 장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첫해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성·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한국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남북조 시대 불교연구의 전망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남북조 시대에는 왕실·상층부 불교가

민중으로 전파됐다”며 “불교의 사회·사상적 변화에 대한 융합적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특히 석각(石刻)자료 등 문헌 연구에 3국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의 ‘법상(法相의소)’가 분) 석의 삼중진에 대해서’, 김성철 HK교수의 ‘중성무위론의 기원에 관한 고찰’, 하유진 HK연구교수의 ‘대반열반경집해’를 통해 본 열반사의 불성의’가 발표됐다.

또 중국 장쉬에송(張雪松) 교수의 ‘군주 가 곧 현재의 여래의 숨은 뜻 해명’, 쉬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세미나에서 한중일 3국의 남북조불교연구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팡(方) 교수의 ‘거울 속의 꽃(구나발마) 전 재검토’, 일본 오쿠노 미즈요시(奥野光賢) 교수의 ‘길장 교학과 진제상상’, 칸노 히로시(菅野博史) 교수의 ‘공택사 법문의 법화경관’, 쿠라모토 쇼오토쿠(倉本尚徳) 교수의 ‘용문 북조소당 조상명문에 보이는

정토신앙의 변용’,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교수의 ‘정영사 해원의 삼불성과 이중성’이 발표됐다.

한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 성과물을 2014년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중 불서 올해도 3종

2012년부터 급격히 줄어... 종교 8종 중 전무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27일 최종 선정 한 2013년도 ‘우수학술도서’ 221종 가운데 불서가 단 3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8종, 2009년 8종, 2010년 6종, 2011년 9종에서 2012년 3종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종교분야 우수학술 8종 중 불교주제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 불교 주제 학술서로는 철학분야의 △불교와 무의 근대(김영진, 그린비), 역사분야의 △고려후기

의 불교(윤기엽, 일조각 - 역사) △한국의 석등(박경식, 학연문화사 - 역사) 등 3종이다.

선정분야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아동청소년 등 11개 분야로 총 4089종을 심사해 386종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정도서를 1200만원 상당 구입해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교정시설 등 1000여 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미얀마 바간유적에 장비 지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6월 23일 미얀마 국립 바간고고학박물관에서 장비 기증식을 열고 한국 장비를 활용한 바간 유적 보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미얀마 문화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증된 장비는 미얀마 측에서 요청한 유압식 고소작업대, 환경모니터링 장비,

세척기 등 바간 유적 보존·복원에 필요한 장비들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미얀마 문화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간 유적의 보존·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재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바간(Bagan)은 세계 3대 불교유적 중 하나로, 2500여 개의 탑과 사원이 존재한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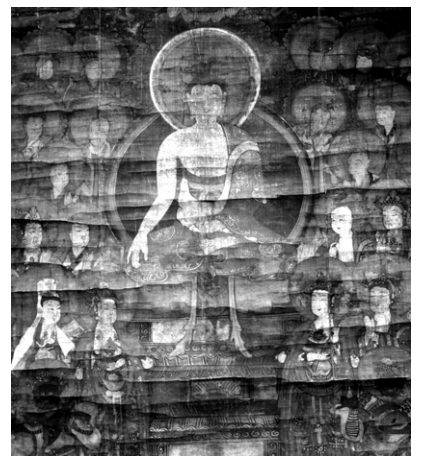
‘석가영산회도’ 8억 3000만원에 경매

서울옥션, 6월 26일 미술품 경매서

임진왜란 때 약탈됐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조선전기 불화 ‘석가영산회도’가 6월 26일 서울옥션 경매에서 8억 3000만원에 낙찰됐다.

석가영산회도는 1592년 장호원 석남사에서 조성된 불화로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에 조성된 것으로 왕실 상공이 발원한 작품이다.

석가영산회도는 일본 교토 한 사찰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주승진 ‘고미술연구소 무유현’ 대표가 매입해 한국에 들어온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지난 5월 국내로 들어온 석남사 석가영산회도

한국불교학회 월정사와 공동 워크숍 개최

8월 19~20일, <한국불교학> 66집 7월 5일까지 모집

한국불교학회가 월정사와 공동으로 8월 19-20일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2013 여름워크숍을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7월 31일까지로 70명 선착순 마감이다.

‘오대산 적멸보궁과 사리신앙의 재조

명’을 주제로 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제1차 학술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7월 5일까지 <한국불교학> 제66집에 게재할 원고 모집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지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 과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한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 738-8680